

市乳개방에 대응한 乳加工業界의 경영전략



김 동 균

〈상지대 축산학과교수·농학박사〉

1. 머리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집단의 흥망성쇠는 그 집단 구성원들의 총체적인 역량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외세에 의하여 멸망한 국가나 단체도 있다고 항변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그 원인이 멸망하는 쪽에도 반드시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분야는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라는 시대적 파도앞에서 침몰하느냐 부상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 세계적으로 식량 기근사태가 인류를 괴롭히던 197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식량을 구하는 문제로 고심하였고 식량잉여국들은 이러한 나라들의 간청을 즐겨왔으나 개발도상국들이 식량자급에 박차를 가하여 사정이 달라지게 되자 이제는 잉여식량의 처분에 고심하는 입장으로 뒤바뀐 것이다. 이른바 UR협상의 실체는 식량잉여국이자 강대국들이 자국의 농민을 살리기 위하여 농산물을 강매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나라의 농업사정에 상관없이 “우리가 너희물건을 팔아주는 대신 너희는 우리물건을 사달라. 우리

로서는 적어도 이만큼의 농산물을 팔아야 하겠다”는 논리인 것이다. 또한 이들은 “세계시장의 공개경쟁시대”를 제창하면서 더 값싸고 더 품질좋은 물건이 살아남는 원칙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터이다.

얼핏보기에 지극히 정당하고 단순한 이 논리는 그러나 식량약소국들에게는 사악에 다름 아닌 것이다. 즉, 이 제의를 수락하였을 때 생산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식량수입국의 농민들은 가격이나 품질경쟁에서 희생될 수 밖에 없으며 그 여파는 식량생산기반의 붕괴와 함께 지속적인 식량예속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식량의 예속화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문화적 지배를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며 삶의 원천을 저당잡히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농산물 수입개방의 일정이 확정된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자원 자급률이 낮은 나라들은 저마다 그 대책에 고심하는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우유는 '80년대 이후 우리 국민의 중대한 식량자원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의 필수식품으로 자리를

굳혔으며 나라를 지키는 장정들에게도 체력보강의 별식으로 공급되어왔다. 또 일반 국민들에게는 각종 유제품들이 건강식품과 기호식품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소비량도 어느덧 연간 2백만톤에 이르고 있다.

시유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유제품의 소비기반은 그동안 국내산 원유에 근거하여 왔으며 원료부족시에 한하여 분유수입이 허용되던 상황이었으나 1993년을 계기로 시유가 수입개방품목으로 확정되었고 뒤따라 치즈와 요구르트마저 완전 개방될 예정이어서 국내 유가공업계는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과연 시유개방은 어떠한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인가?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등의 근본적인 물음과 더불어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른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원료의 효과적인 확보와 이용방안 그리고 수요창출에 의한 판매신장으로 귀결될 것이며, 업계 상호간에 내재된 복잡미묘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서 공멸의 길을 피할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시유개방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낙농유가공업계의 제반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시유개방의 충격

시유개방의 영향에 관하여 그동안 업계에서는 비판적인 시각과 낙관적인 시각이 무수히 개진되어 왔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견해는 우선 가격과 품질 면에서 우리제품이 절대로 불리하며(표1), 비록 생유 도입이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의 통일상품분류(HS) 체계로서는 멸균유를 비롯한 이른바 long-life milk들이 시유로 간주되어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계통에는 비타민을 강화하거나 특수처방된 영양식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일 이러한 제품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 시장을 파고들 경우 국내 시유시장은 상당히 잠식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낙관론을 펴는 쪽에서는 시유의 성질상 아무리 냉각보존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이 15일~30일에 달하는데다가 수입유통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유 자체의 수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서 만일 우리도 일본같이 상품분류품목을 세분화하여 멸균유 등을 시유로부터 분리시킬 경우 시유개방효과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시유개방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상대국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진출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가지고 있을 입장이 아니다. 더우기 모든 유제품을 비롯한 농축산물이 1997년까지는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전제로 한다면 그 영향을 깊이 고려

〈표1〉주요 나라의 원유 및 유제품 가격

(단위: 원/kg, '90년도 기준)

국가명	원유	시유 ¹⁾	버터	치즈	1인당유유소비량(kg)
한 국	364	1,250	5,556	8,250	42.8
미 국	218	523	-	-	329.2
독 일	298	651	4,065	7,598	353.7
영 국	246	386	3,341	3,038	226.6
프랑스	264	796	5,115	7,079	391.1
일 본	452	1,229	6,038	-	83.2

¹⁾1991년 유통가격(자료: 농림수산부)

해두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우리나라 원유의 위생등급이 외국의 그것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시유는 그나마 질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머지 않아 시유에도 질적 경쟁이 치열해 지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조만간 양질 원유의 확보를 위한 경쟁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그 여파는 외국산 양질 환원유의 수입을 촉진하게 될지도 모른다. 더구나 현재의 집유체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고급 시유의 생산을 위한 원료의 확보문제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더욱 미묘한 부분은 시유개방의 시기가 원유부족으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유개방의 위협을 전혀 느끼기 어렵다는 점이다. 어쩌면 오히려 시유수입의 충동을 느끼기 쉬운 시점이라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즉, 없어서 못파는 이 시점에 외제품일망정 들여와 팔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권리를 유업체에 우선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누군들 그 호기를 놓치고 싶어하겠는가?

그러면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시유의 개방이 현실화되고, 그 연동작용으로 외국산 유제품의 수입이 누적될 경우를 상정해 보기로 하자. 유제품수입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일찌기 여러 전문가들이 진단한 바 있는데 조석진(1990)의 예측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외국으로부터 1천억원어치의 유제품이 수입된다면 당장 유가공업계는 1,108억원어치의 매출이 감소하고 양축농가는 388억원을 손해보게 되며, 비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합할 경우 총생산감소액은 2,723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소득의 감소액은 851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고용감소효과도 만만치 않아서 젓소낙농

가는 1,335명이 줄어들게 되고 유가공업체의 인력만 하여도 367명이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전 분야를 포함하면 자그마치 2,600여명이 실직을 당하게 된다고 진단하였다.

요컨대, 외국산 유제품의 침투는 원유생산현장이나 유가공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뿐 아니라 그 피해는 유통분야를 비롯한 비농업 분야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3. 우리나라 유가공업계의 주요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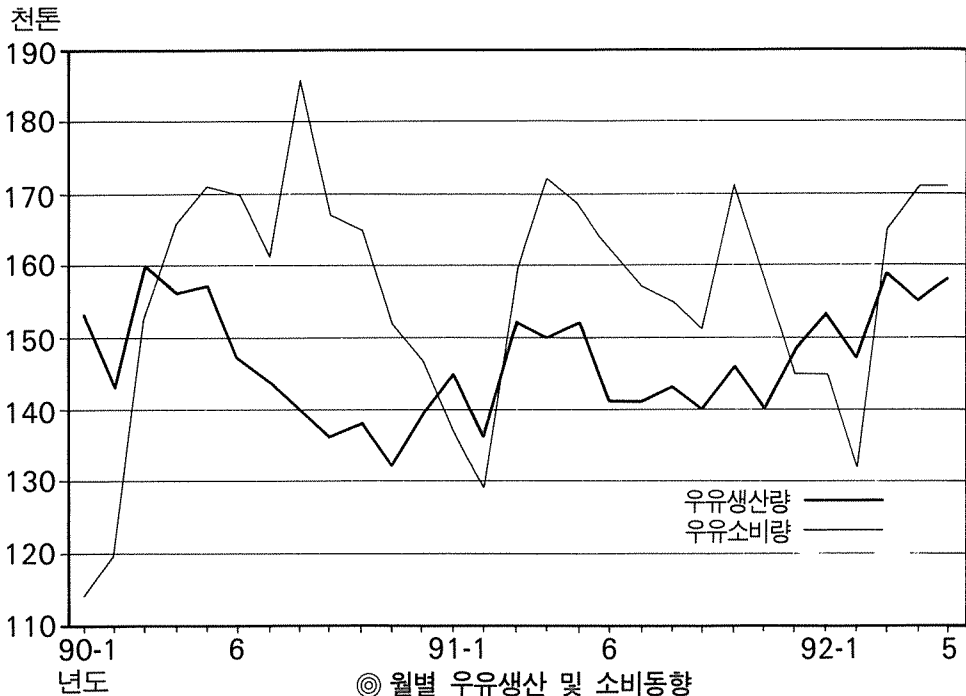
옛말에 전쟁에 이기려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시유개방이 장차 무엇을 몰고 올 것인가를 걱정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가 지닌 취약점 내지 문제점을 돌아보는 것은 이 전쟁을 대비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므로 중요하다고 본다.

유가공업계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필자보다 더 전문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누차에 걸쳐 분석과 지적을 시도하였기에 여기서는 사회통념적인 관점에서 그동안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원유의 양적 확보문제와 집유권 마찰

유가공업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원유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 80년대말 원유과잉사태의 여파로 지난 3년동안 연속적인 원유부족사태를 초래하고 있으므로(그림 참조) 원유확보문제는 발등의 불이 되어 있는 형편이다. 국내의 원유 수급사정은 최근 3년간 매년 20~30만톤(원유환산량)



◎ 월별 우유생산 및 소비동향

의 공급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의 젖소 사육추세와 소비신장추세로 미루어 볼 때 원유 부족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 추세는 낙농진흥법이 통과된 이후 생산기반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이 가해지고 생산자의 의욕이 고취되지 않는 한 쉽게 극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각 유업회사들은 집유선 확보를 위하여 갖가지 묘안들을 양축가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금품살포, 유지방 조작에 의한 유대의 인상지불, 선지급금 지급, 무이자 입식자금 대여, 유질개선비 인상, 사무실 운영비 보조 등등의 방법으로 타 회사에 납유하던 목장들을 자기 회사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것은 필경 원유부대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생산비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제품가격의

상승에 따른 소비의 감소를 초래하여 우유시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은 조속히 자체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행정당국은 이와 같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유업체에 제재를 가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문제가 행정제재로 해결될리 만무한 것이다.

사실 원유확보전쟁은 어제 오늘의 해프닝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매우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것은 어찌보면 인과응보이기도 한 셈인데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정책적인 문제였는데 원유생산과 잉여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용한 줄건이 그것이었다. 즉, 우유가 남아돈다고 해서 엄청난 수의 젖소를 살처분함으로써 생산기반의 장기적인 손상을 초래한 점이였다. 그 결과 원유가 모자

라는 이 시점에서는 수급조절용 분유를 추가로 들여온다, 배정량을 늘려준다, 착유우두수를 끌어 올리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등의 대책에 부심하고 있으나 결과는 “사후약방문”인 셈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좀 더 면밀하고 침착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또한 그 책임은 유업회사측에도 적지 않았다. 즉, 원유가 남아돌면 어김없이 집유기피나 유대지불지연 또는 변태지출이 있어왔고, 원유가 모자라면 그 확보를 위하여 갖은 감언이설과 유혹을 통하여 집유선을 확보하고자 했던 유업계의 눈물겨운(?) 노력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이윤배반적인 모습은 어쩌면 이윤의 신장을 지상의 목표로 삼는 기업정신적 관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귀결일런지 모르겠으나 시장의 구조로 보았을 때 숙명적으로 공생의 관계에 있는 원료공급자(낙농가)와의 관계설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남겼음을 의미한다. 즉, 아무리 공생관계에 있을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동업자의 죽음은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이미지를 남겼으며, 순박하던 양축가도 몇 차례 그 꼴을 당한 뒤에는 그 보상심리로 의리없는 행동을 자행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은 우리나라 원유수급시장에 깊은 불신을 심어왔는데 앞으로는 관계설정의 개선으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양질 원유의 확보문제

최근 시판되기 시작한 이른바 고급시유 제품을 더 팔기 위해서는 질 좋은 우유를 더 많이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얼마전 신문기사에서는 시유개방후 낙농업계의 생존방안으로서 “가격경쟁이 어렵다면

품질로 대응하자”는 제하에 전문가들의 고견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문제가말로 우리나라 낙농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관건이 아닐수 없다. 원유의 위생등급에 상관없이 유지방 함량만으로 유대를 지불하는 현재의 가격체제로는 청결하고 풍미있으며 영양소 함량이 풍부한 양질 원유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만간 우유 가격의 체계가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는데 마침 관계당국에서 이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때늦은 감이없지 않으나 잘된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산적해 있다. 첫째, 우유의 품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우유의 생산을 위한 기술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양질원유의 원만한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뿐 아니라 넷째, 이것의 효과적인 이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 문제들의 상당한 부분이 유가공회사의 자세에 달려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양질 원유를 저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환경과 기술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책임을 생산자에게만 미룰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유업회사측에서는 자신들이 관계맺고 있는 양축농가로 하여금 착유환경 및 설비의 개선과 착유기술의 향상을 통하여 고품질의 원유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여 원료를 확보하는 길이 최선의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3) 유업계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

몇 해전 모 유업체가 생겨난 이후 유업계에서는 우유처리방법을 놓고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졌었다. 이 문제는 불씨로 남아 내연되어

오다가 결국에 가서는 집유방법의 차이와 집유권의 싸움으로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다시 품질의 정당성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내분은 자칫 소비자에게 우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유업계 전체의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제해주기를 당부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소비자에게 우유의 가치를 홍보하는 효과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 공과를 선불리 논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나친 감정의 대립과 그로 인한 광고비의 과중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가 지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 유업계의 또다른 문제중의 하나가 대학우유에 대한 일반 유업계의 곱지 못한 시선이 남아 있는 점이다. 즉, 대학우유들이 원래 연구와 시험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이제는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것에 경계심과 불안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학우유들이 학교라는 공신력을 이용하여 광고효과를 얻음으로써 이윤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세확장을 위하여 집유선 확대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점이 못마땅하다는 것이고 그러할 바에는 실험, 연구용이라는 명분을 포기하고 일반유업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달라는 주문이다. 이 문제는 업체 상호간의 대화와 이해를 통한 해결방법이 최선이다.

우리 업계는 갈 길이 구만리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이던지 이러한 갈등구조는 동업자로서의 연대감을 가지고 승화된 모습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공방을 위해 고심하는 정열과 노력을 제품개발과 수요창출에 쏟아야 할 것이다.

4) 낙농진흥법 개정문제

관련 단체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낙농진흥법은 2차 입법예고 절차만을 밟은 체 법안통과는 해를 넘기고 말았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낙농업계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집유체계의 근본적인 변경과 가격체계의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 유가공업계로서는 종전의 원유검사의 재량권을 잃게 되는 대신 공정한 평가에 의한 안정된 분배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원유 과잉시에는 유리한 가격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집유, 원유검사 및 시장확보에 소요되었던 노력을 제품개발 및 판매관리에 전용할 수 있게 되므로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유생산농가들은 스스로 교섭권을 가지게 되므로 의욕의 증진과 함께 생산성의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유업계의 원료확보문제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유의 등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가격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제도적 문제점

낙농업의 주무 관청은 농림수산부이며, 식품업의 주무부서는 보건사회부이다. 유가공업계는 산업의 성격적 측면에서는 농림수산부와 관계가 깊지만 제품의 생산관리면에서는 보사부의 관장하에 있으므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있는 며느리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

즉, 육성·지원에 관한 일은 농림수산부에서 관장하는 반면 감독기능은 보사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향생물질 잔류여부를 단속한 사건은 그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번에도 보사부는 단속과 제재를 가하였지만 농림수산

부는 해명성 변호를 맡았던 것이다.

현행 법 제도가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지니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과 거리가 먼 조항들이 없지 않으리라고 본다. 대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중에는 이러한 조항과 관련된 사례가 많다. 또한 법규는 결과만을 놓고 맞느냐 안맞느냐를 가리게 되어 있으므로 현실적 사정에 대해서는 지극히 냉정한 속성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나 입장에 따라 적용 여부가 좌우되거나 적용규정이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새 정부의 출발과 함께 정비될 필요가 있다. 즉, 현실성이 없는 관계법규의 보완개정 작업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업무관할 부서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공무원의 자세도 재정립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접적인 인권이 없거나 번거로운 일을 기피 또는 지연시키던 안일한 자세는 반드시 불식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그 책임의 일단이 업계에도 없는 것은 아니다. 업계는 간청하는 자세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당당히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감독관청은 부도덕한 업체에 대한 법규의 적용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관련 업계가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어야 할 것이다.

4. 유가공업계의 경영전략 (결언)

이상에서 살펴본 시대적 상황과 업계의 현안 문제들을 근거로 경영전략을 세운다면 다음과 같은 방향이 될 것이다.

1) 시유개방물량 극소화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한다.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상품분류품목의 세분화를 추진한다. 특히, 외국산 long-life milk의 침투를 막기 위한 대책이 요망된다. 만일 이 제품들이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파고 들 경우 국내 시유시장은 현저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2) 우유의 가치를 재인식시킨다.

우유가 몸에 좋다는 소비자의 인식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가 끌려올만큼 설득력있게 홍보하지는 못하였다. 이 효과는 실제로 제품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완벽한 착유환경과 이상적인 사양관리를 통하여 생산한 양질 풍미의 청정 우유를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가 이 맛에 감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TV를 통한 광고방송도 중요하지만 판매망을 통한 직접적인 접촉도 필요하다.

또한 한편으로는 학계의 지식을 십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최근 연구되고 있는 각종 생리활성물질들의 효과를 소비자가 피부 깊숙히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면서 신선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유제품의 개성화 시대를 선언한다.

미래 사회는 철저한 개성화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 사람들은 대중적 유행보다는 차별화의식이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유제품들도 개성화시대에 걸맞는 모습으로 적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토불이(身土不二)의 정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산 우유에 대한

인식제고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며, 소비자의 연고지나 주거지역 중심의 고유 브랜드가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이용한다면 기존의 업체에서 연고를 맺고 있는 집유지역의 풍물의 이미지를 심어 개성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잠재수요를 개발한다.

미국의 경우 유제품과 커피의 소비는 크게 감소한 반면 무알콜음료의 소비는 크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음료의 총 소비실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잠재수요도 대단히 크다고 본다.

현재에는 유업계에서조차 유음료가 아닌 경합성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스스로 우유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데 앞의 설명에서와 같이 우유, 유제품 및 유음료에 대한 고도의 홍보전략을 구사하여 잠재수요를 신장시키는 것이 유업계의 생명력 유지에 중요하다.

또한 이윤이 적은 학교급식을 원유가 모자란다고 해서 대체하거나 기피하는 것은 미래의 고객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유를 먹이는 일! 그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 유업계의 장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강조해 둔다.

5) 고부가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양질의 확보와 더불어 시유의 제품도 차등화될 것이 분명하다. 신선하고 감미로운 시유의 호소력은 이미 체험한 바 있거니와 장차 청정유가 등장할 경우 그 수요는 항상 넘칠 것이다. 소비자는 이제 개성과 품질을 높이 살만큼 성숙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치즈시장을 공략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식단의 다양화와 함께 그 수요의 신장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의 기호를 정확히 헤아려 입맛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일이 과제이다.

또한 우유중 생리활성 물질의 추출 및 정제를 통한 고부가 상품(약품)의 개발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과의 유대관계 강화 및 공동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6) 가격의 합리화를 모색한다.

가격의 상승은 구매욕을 감소시킨다. 합리적인 가격은 저렴한 원료, 능률적인 생산관리 및 효율적인 유통구조에서 비롯된다. 특히, 값싼 원료는 원유생산의 과학화에서 이루어지므로 유업계는 그 동기여부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유업체는 원료조달기반과의 연계체제를 강화하고 그 생산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